

### 3) 해조류

연안해역은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접촉하는 곳으로 조석간만의 차는 물론 이로써 나타나는 해안의 특유한 물리·화학적 요인 때문에 육지와 전혀 다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조류는 인간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를테면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오래 전부터 주된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었다. 우뚝가사리·꼬시래기 등은 한천원료로, 그밖의 여러 해조류(海藻類)들은 가축사료나 산업원료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근년에는 광양만권개발과 순천만지역의 각종 공업단지개발로 해조자원이 날로 황폐해가고 있으며 항만건설, 매립, 개축의 지형변화로 해조류의 생육환경도 날로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6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와 『남해안 일대의 해조상』<sup>1)</sup>을 보면 순천시의 신성포지역과 화포지역의 해조상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화포와 신성포의 조간대의 해조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갯벌지역이었고, 구멍갈파래가 부분적으로 바위나 돌에 붙어 있다. 화포에서는 거머리말·왕거머리말·새우말 등 관속식물의 수중군락지를 발견하였고, 간척지에는 칠면초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조간대 상부의 관속식물은 일반적으로 간척지의 해수 영향으로 갯능쟁이, 가는갯능쟁이, 통통마디, 칠면초, 나문재, 해홍나물, 솔장다리, 수송나물, 갯질경이 등의 염생식물이 많다. 화포에서는 거머리말, 왕거머리말이 수중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남해안을 전반적으로 개관할 때 상조간대에서는 불등가사리·풀가사리·구멍갈파래·홀파래 등이, 중조간대에서는 패류·바위수염류 등이 우점하고 하조간대에서는 툇류와 모자반류·서실류가 우점하였다. 조간대에 상·중·하 고루 분포하는 종으로는 구멍갈파래, 지충이, 툇이 우점종으로 기록되었다. 일반적으로 갈조는 한해에서, 녹조는 난해에서 볼 수 있으나 남해안의 내만지역에서는 비교적 파래류가 번무하고 외해지역일수록 갈조류를 포함하여 해조상이 다양하다. 바다의 해조류는 제2의 식량자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1) 김종홍, 「남해안 일대의 해조상」, 『순천대학 새마을 연구논문집』 제4집, 1988, 55~83쪽.